

농어촌공사 광주지사,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

✎ 주남현 기자 | ⌚ 승인 2026.03.26 16:53

청년농 및 공사 담당자 참여, 현장 체감 어려움 청취



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. /사진=광주지사

| 광주=한스경제 주남현 기자 |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26일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농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이날 간담회는 청년농업인,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, 청년농업인의 현장 체감 어려움을 청취하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 방향 등의 의견을 나눴다.

광주지사는 2025년에 44억원(맞춤형농지지원사업 37억원, 경영희생지원농지매입사업 7억원)을 집행, 청년농 및 경영위기 농가의 영농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2026년에도 대폭 증액된 70억원의 예산을 확보,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.

김철상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"며 "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농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"고 말했다.



주남현 기자 tstart2001@sporbiz.co.kr

저작권자 ©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